

**사설**

**명상 편의점 시대 개막**

편의점에 가면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명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선문화연구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에 명상편의점인 선(仙)을 개원했다. 누구나 쉽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라 한다. 지난 9월에는 '선문 화제현전 - 맨발로 걷는 명상여행'이 서호갤러리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바가 있다.

명상을 선(禪)이라 하지 않고, 선(仙)이라 명명한 것은 종교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에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좌망(坐忘)이나 태식법(胎息法) 같은 호흡법이 있었다. 불교의 전래 이후 불교의 수행법을 수용하여 더욱 발전시킨다. 그러나 이름이여야 하듯 명상법은 불교의 영향을 배제하곤 논할 수 없다.

명상은 의학, 경영학, 심리학 등 다방면에서 응용되고 있다. 풀개성화, 인간의 부패화, 극단적인 개인주의 등으로 현대인들은 지쳐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사는지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명상은 이러한 사회적 증후군들을 치료할 수 있는 요법이 될 수 있다. 명상을 현실 속에서 활용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불교계는 명상편의점이 등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명상문화가 등장하여 대중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천년의 명상전통을 가진 불교가 명상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하자.

**조계종의 종립학교 사랑**

조계종이 종립학교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애정 표현을 했다. 내년 예산에, 동국대에 총무원장 장학금 1억원을 배정했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중비생 기숙사인 백상원 지원금도 각각 2억 원씩을 배정할 것이다. 조계종이 내년부터 동국대에 총무원장 명의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박수를 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에도 강원과 중앙승가대 등 승가교육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왔지만 그 폭을 넓혀 인재발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인재발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불사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없이 불교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모래위에 집짓기일 뿐이다. 특히 동국대가 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수위를 높여 온 부분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 장학금이 종립대학에 없었던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런 구도 속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지적마저 있어 온 터다. 이제 총무원장 장학금이 운영됨으로써 동국대에 대한 종단의 애정은 상당한 상징을 갖게 됐다.

이 같은 상징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불교화 발전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종단 장학금의 수혜자인 동국대에 이러한 상징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동국대도 종단과 한 몸이라는 인식 속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불태워야 할 것이다. 종단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혜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기왕에 마련된 장학금 제도를 통해 종단과 동국대가 인재발사의 마당을 더욱 넓혀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준수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 02-737-8881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6년교육 마쳐야 구족계 수지”**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승가교육체계 개선뜻 밝혀**

**수익사업 등 통해 승려복지체계 갖춰**

**북한산문제 여론수렴해 원만해결 생각**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1월 19일 수덕사에서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의 법어집 <덕숭산 법향> 봉정식이 끝난 뒤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주요 종책 기조와 북한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먼저 내년도 중점 사업과 관련해 법장 스님은 “최소한 6년의 교육을 거쳐야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승가교육체

를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장 스님이 제시한 '선교육 후독도'는 4년간 내·외전을 포함해 영어, 설법, 의식까지 모두 배운 뒤 사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원과 선원을 전문대학원 형태로 전환해 이곳에서 2년간 공부를 마쳐야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특히 사이버불교대학을 개설하는 등 전문대학원 제도를 마련해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고 법장 스님은 밝혔다.

승가복지와 관련해서는 “수익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이 것(승가복지)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특히 수익사업과 관련해 “이젠 종교도 자립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종교로 자리매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산 및 법장사 처리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일단의 견해를 피력했다.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법장 스님은 “내게는 해법이 없다.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는 물론 교구본사 주지스

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적 의견수렴을 통한 대안마련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현재 호법부가 정우 스님의 승적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법장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총무원의) 각 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주지선출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법사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그 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1면에 이어서

참가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가불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불교수행법을 통한 자기성찰의 기회제공과 수행을 생활문화로 정착·확대시켜나가겠다는 것이 조계사 청년회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계사청년회는 참가자들에게 매주 새로운 강좌와 함께 매일 108배하기, 10분간 참선하기, 발원문 쓰기 등을 통해 수행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정우식 회장은 “이번 수행법 대강좌를 일회적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가불자 동안거모임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계사청년회는 이와 함께 한국불교 나아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불자 회담21만들기, 염원 108배 이어하기, 설법·집전대회 등 '1인 1수행법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02)735-3724

김은경 기자 lipck@buddhapia.com

**범어사 선암사 및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위**

**소위원회 구성...활동 본격화**

조계종 중앙종회 범어사·선암사 실태파악특별위원회의 사설사암 실태파악특별위원회는 11월 18일 첫 회의를 열고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이날 범어사·선암사 특위는 각각 정문·해림·토진·무자 스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항적

스님을 소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11월 26일 범어사와 선암사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설사암특위도 효림·법안·일화·도문·계호 스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효림 스님에게 소위원장을 맡기는 한편, 11월 28일 오전 11시 소위 1차 회의를 열

어 조사 범위와 활동 방향 등 세부 일정을 확정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경내 화장실 건립 쉬워질듯**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국회상정**

전통사찰보호구역에서도 스님이나 신도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창고 등의 부대시설 건립이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18일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전통사찰보호구역에서 불교목적용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사를 위한 부대시설 변경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2항' 개정안을 국회 문광위에 상정했다.

문광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부대시설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 전통사찰보호구역에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부대시설의 범위를 ‘화장실 및 창고’로 제한하자”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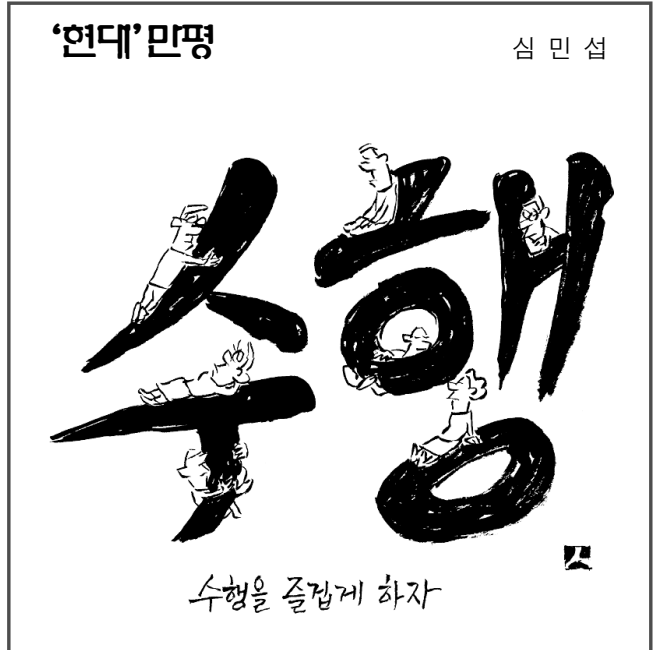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중무2과 박낙중 사무관은 “법안안이 개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위치한 사찰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통사찰인 회룡사 주지 법현 스님은 “화장실이나 창고 등의 증·보수 과정이 까다로운 것

은 사실이다”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전통사찰 보호나 자연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항목을 명확히 규정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오유진 기자



“향후10년 포교정책수립”

**포교원, 내년 사업기조 설명**

조계종 포교원(원장 무비)은 11월 19일 포교, 신도단체 대표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포교원 사업 기조를 설명하는 ‘포교·신도 단체 지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포교원이 발원화된 지 10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포교 정책 수립에 의의와 원력을 결집하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일관 스님은 중장기 포교 정책 수립 외에도 △신도교육과 화와 사찰-제단체 연계 시스템 강화 △군승특별교구 출범 및 청소년 포교활동 강화 △포교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체계 확립 △템플스테이 전담기구의 확보를 통한 국제포교 역량 강화 등을 6대 사업 기조로 제시했다.

권현진 기자

**본사사령**

배지선  
 (명)편집국 취재부 수습기자  
 2003년 11월 10일

**고침** 448호 5면 '화성 신흥사에서 열린 제2차 불교환경워크숍 모습' 사진은 11월 13일 열린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자비관 신축 준공식 장면이므로 사진 설명을 바로잡습니다. 14면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이 개최한 '제3회 재해민들기 수행선법' 기사에서 '심우도'를 작곡한 사람은 박준성 씨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종단은 입적하신 이법홍 대종사님께서 창종하시어 중정 중심제로 종단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종권 쟁탈을 위해 일부 몇사람의 해종행위로 인하여 종단이 일파만파 된 것을 전 종도들이 단합하여 종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에 거듭할것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승무진의 추종자의 행위**

1. 종권 쟁탈을 위해 중정 중심제(중헌제3장 13조 중정의 권한 참조)에서 불법으로 총무원장 중심제로 개정하여 해종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2. 승무진은 2000년 10월 23일 상발위원회에서 채택도첩 결정되어 2000년 10월 26일 중정스님의 재가로 채택도첩 된자로 승려의 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3.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2002년 1월 3일에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을 망각하고 사법 기관에 고소 고발한 것을 모두 취하하고 참회하며 추후 화쟁사상을 실천하겠다는 참회 각서를 작성하고 잘못을 반성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승무진은 총무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정된 중헌.중법을 공포하고 대한불교 원효종의 총무원장 행세를 하며, 소외 김상조를 중정에 취임시켜 종도들로 하여금 종단의 혼란을 일으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2003. 10월 28일자 불교신문 성명서, 공고문 광고참조)하였습니다.

5. 대한불교원효종은 중정중심제인데도 승무진이 자칭 총무원중심제라고 주장하며 불법단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재판을 걸어왔으나 2003년 10월 30일 부산고등법원 판결(부산지방법원 선고 99 가합 16739)에 의하여 총무원장 중심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조속히 승무진측이 만든 불법단체는 해체되어야 하며 종도들은 현혹되던 안목을 알려드립니다.
6. 종조의 화쟁정신에 입각하여 종권을 바로잡고 귀일승하여 불법 흥포에 진념 명실상부한 불교종단으로 거듭나고자 아래와 같이 원효종 전 종도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종도대회 일시 : 2003년 11월 26일 오후 2시**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2003년 11월 14일

**대한불교원효종 중정권한대행 최 덕 산**